

10월 21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10월 21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2

wr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美증시, 주택지표 부진..다우 0.5%↓	뉴욕 증시가 20일(현지시간) 하락세로 장을 마쳤음. 부진한 주택지표가 기업 실적 호재를 희석시켰음. 다우 지수는 전일대비 50.71포인트(0.50%) 하락한 1만41.48을, 나스닥 지수는 12.85포인트(0.59%) 내린 2163.47을, S&P500 지수는 6.85포인트(0.62%) 떨어진 1091.06을 각각 기록했다. 이날 증시는 개장 전 발표된 9월 주택착공이 예상치에 미달하고 착공허가가 예상 밖으로 감소함에 따라 하락세로 출발했음. 앞서 발표된 애플, 캐터필라, 화이자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이 느리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투자심리를 제한했음. 아울러 코카콜라, 듀폰 등 일부 기업들의 매출액이 기대에 못미친 점도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비용절감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해석을 낳았음.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현재 S&P500 기업들 가운데 130개사가 실적을 발표했다. 이들 기업의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평균 2.2% 감소했고, 월가의 예상치를 평균 0.9% 밑돌았음. 한편 이날 국제 가격은 9월 생산자물가지수(PPI) 하락을 호재로 상승했고, 달러는 14개월 저점에서 벗어나 반등했음. 국제 유가는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한 후 79달러대로 되밀렸음.
주택착공 예상치 미달	미 상무부는 지난달 주택착공이 연율 0.5% 증가한 59만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단독주택 착공이 증가한 반면 다세대주택 착공이 급감한 영향으로 분석됐음. 블룸버그가 집계한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는 61만건이었음. 지난달 주택착공허가는 1.2% 감소한 연율 57만3000건을 기록, 예상치인 59만건을 밑돌았다. 특히 단독주택 착공허가는 3% 감소한 45만건을 나타냈음.
주요 기업들 실적 호재 이어져	애플에 이어 이날 개장 전 발표된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음. 제약업체 화이자도 지난 분기에 순이익 28억8000만달러(주당 43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음.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22억8000만달러(34센트)를 기록했었음.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은 주당 51센트를 기록했다. 이는 팩트셋리서치가 집계한 월가의 예상치 48센트를 웃돈 수준임. 그러나 주가는 0.28% 하락했음. 중장비업체 캐터필라는 지난 분기 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53% 감소한 4억400만달러(주당 64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음. 이는 팩트셋리서치가 집계한 월가 예상치인 주당 6센트를 큰 폭으로 상회한 수준임. 매출액은 44% 줄어든 73억달러를 기록, 역시 예상치인 72억9000만달러를 소폭 웃돌았음. 주가는 3.04% 상승했음.

제목	주요 내용
국제유가, 9일만에 하락..장중 80달러 터치	국제 유가가 20일(현지시간) 거래에서 배럴당 80달러선을 일시적으로 넘어선 후 79달러대로 되밀렸음.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 속에 미국 주택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된 점이 원유 선물 매도를 부추겼음.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 인도분 가격은 전일대비 배럴당 52센트(0.7%) 하락한 79.08달러로 마감했음. 유가가 하락한 것은 9일만임. 특히 지난주에는 9.4% 상승하며 2개월만에 최고 주간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음. 유가는 이날도 장 중 80.05달러를 기록하며 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음. 그러나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높아진 가운데 부진한 경제지표를 계기로 차익실현 욕구가 확산되며 유가는 하락세로 돌아섰음. 한편 21일부터 기준물이 되는 WTI 12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84센트(1.1%) 하락한 79.12달러로 마감했음.
윤증현 "단기간내 위기 전 고용수준 회복 어려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세계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단기간내 위기 전 고용상태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음. 윤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고용여건 개선은 실제 경기보다 상당히 후행성이 있어 훨씬 더딜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음. 그는 "완만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 여건이 크게 안 나아져 걱정"이라며 "9월 취업자수가 공공행정 등이 33만명 늘어났지만 제조, 건설,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 민간 부문의 자생적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며 총 7만 1000명 증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50세이상 취업자가 늘어난 반면 19세이상 청년층 취업자수가 감소하는 취약한 모습이라는 것임. 윤 장관은 아울러 민간소비 위축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민간소비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들이 600만명 수준에서 570만명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자영업 신용보증 확대, 미소금융 중앙재단 설립과 함께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소매점포 컨설팅, 시설지원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왔다"고 말했음. 윤 장관은 다만 "고용 여건 개선이 더디긴 하지만 기업과 정부가 노력한 결과 실업문제 악화 정도가 다른 나라보다는 덜하다"며 "청년 인턴, 사회적 일자리 등으로 80만명 공공 부문 일자리를 만들어 냈고,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잡세어령을 통해 100인이상 사업자 30%가 일자리 나누기에 참가한 만큼 자부심을 가질만 하다"고 말했음.
유럽증시, 금융주 약세로 하락 마감	유럽 증시가 20일(현지시간) 하락 마감했음. 카타르 국부펀드가 바클레이즈 지분을 일부 매각한 점이 금융주를 끌어내리며 투자심리를 악화시켰음. 영국 FTSE100 지수는 전일대비 38.14포인트(0.72%) 하락한 5243.40을, 프랑스 CAC40 지수는 20.91포인트(0.54%) 내린 3871.45를, 독일 DAX30 지수는 40.79포인트(0.70%) 떨어진 5811.77을 각각 기록했다. 카타르 국부펀드는 바클레이즈 주식 3억7900만주를 주당 360펜스에 매각하고, 같은 규모의 워런트를 주당 197.775펜스에 행사했음. 이에 따라 바클레이즈는 이날 증시에서 4.79% 하락했음. 반면 카타르 국부펀드가 인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영국 유통업체 생즈버리는 5.36% 상승했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